

LG화학, 르노자동차에 배터리 공급

르노, 닛산 배터리 기대치 미달 ... LG화학과 차세대 배터리 개발 논의

프랑스의 르노자동차가 앞으로 출시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을 닛산(Nissan)에서 LG화학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7월2일 보도했다.

리베라시옹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르노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기업으로 당초 선정했던 닛산 배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계획대로라면 닛산 배터리가 파리 근교 이블린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도 맡아야 하지만 산업스파이 스캔들 문제로 최종결정이 미루어져 왔고, 현재 르노가 배터리 공장 건설을 LG로 결정하기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노의 한 대변인은 AFP 통신에 "LG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리베라시옹신문은 르노의 결정은 르노-닛산의 전략적 제휴가 정치적·산업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03>